



해 | 박두진

떨어져도 튼는 공처럼 | 정현중

(가)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갱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옛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해가 솟아나기를 소망함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 해가 부재하는 달밤을 거부함

해야, 고운 해야. 너가 오면 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 해와 함께하는 세계에 대한 소망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따라 취범을 따라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 화합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밝고 따뜻한 세계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 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옛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 화합과 공존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소망함

(나)

그래 살아 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튼는 공이 되어

▶ 공이 되어 살아 보자는 다짐

살아 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 쓰러지지 않는 공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 되어 있는 풀

둥근 공이 되어

▶ 가볍게 떠오를 수 있는 공

옳지 **최선의** 풀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튼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 정현중, <떨어져도 튼는 공처럼>

▶ 최선의 풀인 공



핵심점점

<해>

시구풀이

•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aba구조

- 해야, 해야, 어서, 제발, 땅 위로 올라 오거라

- '해'의 등장은 곧 어둠의 소멸이고, '해야 솟아라'의 (명령형) 반복을 통해, 화자가 '해가 솟아오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 해: 광명, 평화, 화합 상징

• **말갱게** (산뜻하게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화자가 **소망하는 '해'**가 '말갱고 고운 해'임을 알 수 있기에, 화자가 '어둠이 사라진, 그리하여 밝고 맑으며 고운,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

- 여기서 '해'는 자연의 해가 아니라 '어둠'과 같은 절망적 현실을 물리치는 새로운 세계의 빛과 같은 존재로, '말갱게 씻은 얼굴'은 해가 지닌 맑고 깨끗한 심상을 드러낸다. 또한 '해야 솟아라'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획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광명의 세계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 저 산을 넘고 넘으며 하늘로 솟아올라, 끔찍한 이 어둠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고

• **이글이글 옛된 얼굴**

- 밝고 한하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너의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도 같은, 맑고 고운 얼굴을 드러내며

- '해'의 얼굴이 '옛된 얼굴'이 되는 이유는, 어둠을 살라 먹고 이제 갓 태어난 해이기 때문일 것이다.

• **고운 해야 솟아라.**

- 그렇게, 곱게 하늘 위로 솟아 오르거라
- '해'의 강렬함으로 '어둠'을 물리칠 것을 말하고 있다. '해'를 '엷된 얼굴'로 표현한 것은 동심(童心)과도 같은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 '해'에 대비되는 존재 혹은 상황으로서의 '달밤'에 대해 (달밤이 야기하는 어둠에 대해) 화자가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달밤: **암울한 현실**

◆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 시련과 고통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는, 산속 깊고 어두운 골짜기와도 같은, 이 절망의 공간에 어둠을 드리우는 저 달밤이(달이 희미하게 이 깜깜한 밤이) 나는 너무도 싫구나.

◆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 홀로 외로이 있는 이 뜰에, 쓸쓸한 어둠을 드리우는 저 달밤이 나는 참으로 싫구나
- '해'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 '달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 등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는 있다.

- '달밤', '골짜기'는 '어둠'과 마찬가지로 '해'와 대립되는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절망과 비애의 세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여 준다.

◆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 해야, 고운 해야, 네가 떠오른다면, 내가 진정 저 하늘 위로 떠오른다면

◆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 (네 빛에 의해 환하게 드러날) 맑고 푸른 이 땅의 청산이, 나는 너무도 좋을 것이구나

- 청산: **희랍과 꿈의 세계,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

◆ **훨훨갈 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 훨훨갈 날갯짓을 하며, 힘차게 날아오를 것만 같은 (그때의 - 해가 솟아올라 흰히 그 모습을 드러낼) 이 땅의 청산이 나는 참으로 좋을 것이로구나
- '훨훨'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됨으로써 '청산'이 지니는 역동성(생명력)이 보다 인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 날갯짓을 하며 이 땅의 청산이 훨훨갈 날아오르더라도 한다면 나는 비록 홀로일지라도 너무도 좋을 것이로다.
- '청산'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으로 화합과 공존의 평화로운 세계를 상징한다. 세상이 이 같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면 화자는 외로워도 좋다고 말한다. 이것은 화자의 소망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 흰히 드러난 이 청산에서 사슴을 만나면 그 사슴을 따라 놀고

- 화자가 청산에서 사슴과 평화롭게 어우러지고 있다. '사슴'은 그 순한 습성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따지면 '순하고 여린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 양지: **밝은 세상**

◆ **침범에 침범 같은 어둠처럼 줄무늬가 있는 뱀을 따라 침범을 따라 침범을 만나면 침범과 놀고……**

- '침범'은 '사슴'과 달리 용맹하고 강한 짐승이기에, 화자가 개인적인 성질, 성품에 연연해하지 않고, 청산의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어우러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 '사슴'은 선한 약자를 '침범'은 강자를 상징한다. 약자와 강자를 가리지 않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화합과 공존의 세계를 나타낸다.

◆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 1연에서 반복 사용된 '해야 솟아라'가 다시 한 번 반복되고 있기에, 본 시가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해의 솟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꿈이 아니라도**

- 너를 만나게 되는 것이, 분명 꿈에서만은 아닐 것이니

◆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않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않아**

- '한자리 않아'의 반복을 통해, 해가 솟은 후 청산의 여러 존재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상황을 화자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은 해방 후 혼탁했던 조선 땅이 환한 빛이 비치듯 갈등의 시대를 넘어 조화와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엷되고 고운 날을 누리 보리라.**

- 맑고 생기 있는, 그리하여 참으로 순수하여 고운, 그러한 아름다운 날을 진정 행복하게 누리 볼 것이로다.

-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도래하여, 환하게 드러날 이 땅의 푸른 청산이 조화와 화합의 공간이 되기를, 화자가 의지적으로('누리 보리라') 소망하고 있다.

- **엷되고 고운 날:** 약자와 강자가 화합하는 이상향,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

☑ **특징**

- 성격: 상징적, 열정적, 미래 지향적
- 4음보의 급박한 리듬을 사용함.
- 시어와 시구의 반복적 사용
-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분위기와 정서를 형성함
- 명령형 어미와 호격 조사의 사용
-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강한 열망을 드러냄
-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구도를 사용함.
- 반복과 변조를 통해 소망의 간절함을 나타냄

- 반복과 열거를 통한 리듬감 형성, 주제 강조
- 의성어와 의태어의 적절한 사용: 생동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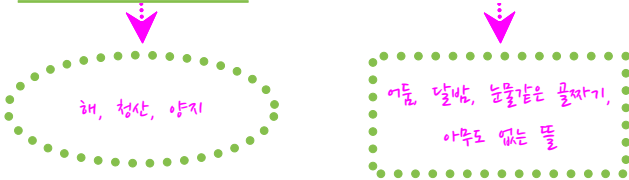
✓ 대립적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 밝음, 평화, 화합, 공존
- 긍정적인 의미

어둠의 이미지

-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
- 어둠, 절망, 비애
- 부정적 의미



<떨어져 튀는 공>

✓ 시구 풀이

• 그래 살아 봐야지

- 그렇지, 그렇게 힘을 내어 일어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해야지: 의지적 태도

• 너도 나도 공이 되어

- 너도, 그리고 나도, 우리 모두, 둥글고 탄력 있는 저 공처럼: 도치법

•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 아래로 떨어져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곧장 튀어 오르는 저 공처럼
- '떨어져도'를 통해 '하강 이미지'를, '튀는'을 통해 '상승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살아 봐야지

- (쓰러지지 않는 저 둥근 공처럼) 힘을 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든 다시 살아봐야지
-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는 둥근 공'을 보며 다시 힘을 내 삶을 살아가야 함을 화자가 다짐하고 있다.

•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 행간결침을 통해 강조

• 공처럼, 탄력의 나리의

- 행간결침을 통해 강조
- 공은 네모나거나 이런 저런 각이 진 것이 아닌 둥근 모양이기에, 언제라도 다시 구를 수 있는 것이다.

• 왕자처럼

- 공은 둥글고 탄성이 있어 아무리 아래로 자주 떨어져도 떨어지는 만큼 곧장 위로 튀어오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 가볍게 떠올라야지

- (그리고 언제라도 움직임 준비가 되어 있는 저 둥근 공처럼) 가볍게 일어나야지

• 곧 움직일 준비 되어 있는 골

- 바닥에 밀착되지 않은 원형: 공의 본질적 속성

• 둥근 공이 되어

- '공'은 '둥근 모양'으로 인하여, 언제라도 다시 구를 수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최선의 꼴

• 울지 최선의 꼴

- 그렇지, '공'은 둥근 까닭에 쓰러지지도 않고 떨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기에, '둥글'은 그야말로 최선의 모습인 것이지

• 지금의 네 모습처럼

- 마치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는, 바로 지금의 네 모습처럼 말아야

•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 '음성 상징어'가 아닌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에서 연상되는 감각 이미지를 통해 '공'의 동적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 공처럼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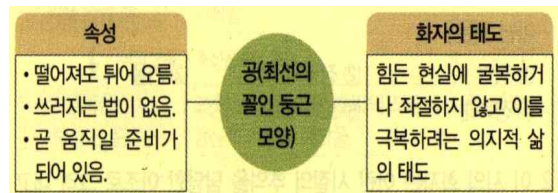
•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 (최선의 꼴을 지녀) 떨어져도 튀어 오르고,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우리 역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할 것이다

-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겠다는 삶의 의지

✓ 특징

- 사물(공)의 속성을 이용하여 주제의식을 형상화함
-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 도치법과 행간 결침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의미를 강조함
- 동화적인 비유와 경쾌한 상상력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냄



※ 박두진, <해>

- 주제: 밝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 해제: 이 시는 광복 직후인 1946년에 발표되었는데, 밝고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해'를 통해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강렬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구성
 - 1연 해가 솟아나기를 소망함
 - 2연 해가 부재하는 달밤을 거부함
 - 3연 해와 함께하는 세계에 대한 소망
 - 4~5연 화합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밝고 따뜻한 세계
 - 6연 화합과 공존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소망함

※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주제: 공의 속성을 지닌 삶에 대한 소망과 다짐
- 해제: 이 시는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는 공처럼 우리도 살아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공'은 최선의 꼴을 갖춘 가볍고 탄력적인 대상이다. 이 시에서는 동일한 구절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주기적으로 튀어 오르는 공을 연상하게 하여 운율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도 한다.
- 구성
 - 1연 공이 되어 살아 보자는 다짐
 - 2연 쓰러지지 않는 공
 - 3연 가볍게 떠오를 수 있는 공
 - 4연 최선의 꼴인 공



'개념' 있는 킹콩™

1. 이 시는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O X]
2. 음성 상징어, 시각적 심상, 비유, 역설 등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O X]
3. 화자는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청산의 모습을 희망하고 있다. [O X]
4.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5. '청산'은 모든 존재가 어울려 화합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O X]
6.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가 원하는 세계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다. [O X]
7. 대체로 4음보의 리듬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형시에 속한다. [O X]
8. '달밤은 '달'의 밝은 이미지를 통해 생기가 넘치는 세계의 모습을 조명한다. [O X]
9.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는 '해가 솟기 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청산'의 모습이다. [O X]
10.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낸 구절이다. [O X]
11. '뛰어이 뛰어이'는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 떨쳐 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O X]



'개념' 있는 킹콩™

1. 이 시는 동일한 구절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O X]
2. '떨어져도 튀는 공'은 역설적 표현이다. [O X]
3. 하강과 상승의 대비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실 세계의 모호함을 드러내고 있다. [O X]

[O X]

4. 특정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O X]

5. 의도적으로 행을 나눠서 '공'의 하강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O X]

6. '떨어져도 튀는 공'에는 하강적 이미지와 상승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다.

[O X]

7. '탄력의 나라의 왕자'는 공의 탄력적인 속성을 비유한 표현이다.

[O X]

8. '공'을 '최선의 꼴'이라고 한 이유는 공의 둥근 모양이 이상적이고 바른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O X]

9. 힘든 시대 속에서 '나'는 지금까지 체념적인 태도를 취해 왔음을 암시하는 시구를 2어절로 써라.

10. 동화적이고 발랄한 상상력을 나타내는 시구를 3어절로 써라.

12.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O X]

13. '공'은 하강과 상승 이미지 모두 결합되어 있다.

[O X]



해 | 박두진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정현중

[개념있는 기출]

(가): ①O ②X ③X ④O ⑤O ⑥X ⑦X ⑧X ⑨X
⑩X ⑪X

(나): ①O ②X ③X ④O ⑤X ⑥O ⑦O ⑧O ⑨살아
봐야지 ⑩탄력의 나라의 왕자 ⑪X ⑫O